

취업 면접 준비도 'VR 시대'

〈가상현실〉

VR 기술 활용 면접기기 운용 가상 면접관이 등장해 질문 다양한 기업·직군 선택 실제 면접장처럼 연습 가능



취업 준비생들이 동신대학교 정보전산센터 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VR(가상 현실) 면접 기기를 통해 면접 연습을 하고 있다. 동신대학교는 최근 지원하고자 하는 10가지 업체와 10가지 세부 직군을 선택해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VR 면접 기기를 도입했다. <동신대 제공>

고급처럼 생긴 기기를 착용하면, 화면에 가상 면접관이 등장한다. 실제 면접장에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주고받으며 면접자는 자연스럽게 면접 기술을 터득한다.

VR(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모의 취업면접 기기가 광주에 마련됐다.

언제 어디서든, 면접관을 눈 앞에 두고 취업 면접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기다. VR 면접 전문업체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돼 있어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

면접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 업체를 선택해 관련된 면접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직무 관련 질문은 물론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 다양한 질문이 마련돼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경찰, 9급 공무원 등 10가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영관리, 마케팅, 개발, 디자인, 금융, 공공기업, 공무원, 의료 서비스, 건설 등 세부 직군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각 직군-업체에 최적화된 질문 수만 3000여 가지에 이른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 연습이 가능하다. 모의면접실을 만들고, 스크린을 띄워 놓은 뒤 일일이

면접 질문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했던 과정을 크게 단축시킨 것이다.

또 면접 연습을 별도의 강사나 동료 없이도 혼자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질문을 받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습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일방적으로 질문을 쏟아내지도 않는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 면접자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감, 높낮이 등 목소리 톤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면접 연습을 마친 결과는 이메일로 통

보받을 수 있으며, 면접 과정을 담은 녹음 파일도 함께 제공된다.

김민정(42)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고, 주변 사람 신경쓰지 않고 어디서든 면접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동신대학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취업 준비생을 위한 면접교육용 VR(가상 현실) 취업면접기기를 도입했다. 기기는 동신대 정보전산센터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총 2대를 운용 중이다. 이들 기기는 동신

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직접 찾아 사용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동신대는 올 상반기 내에 VR 취업 면접기기에 AI(인공지능)를 더한 면접 기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AI면접기기를 도입하면 VR 면접기기를 보다 실제에 가깝게 발전시킬 수 있다. 목소리 톤 뿐 아니라 답변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 435만명 돌파

SK텔레콤 45%·KT 30% 가입자 증가 폭 안정화 단계

지난해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43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공개한 '무선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11월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435만5176명으로, 10월 398만2832명보다 9.3%(약 37만 2000명) 증가했다.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5G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1월 가입자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접어들면서 5G 가입자 증가 폭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가입자는 78만4215명으로 그 전달인 27만1686명에서 무려 188%에 달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후 6월 70.4%, 7월 43%로 가입자 증가율이 줄었고, 8월 46.1%로 소폭 늘어났다가 9월 24%, 10월 14.8%로 가입자 증가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월별 누적 가입자는 5G 상용화를 시작한 4월 27만1686명, 5월 78만4215명, 6월 133만6865명, 7월 191만1705명, 8월 279만4536명, 9월 346만6784명, 10월 398만2832명을 기록했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94만963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KT는 132만4376명(30.4%), LG유플러스는 108만9837명(25%)으로 집계됐다.

국내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는 6867만 7390명이었고, 이 중 통신사의 설비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회선을 제외했을 때 전체 가입자 수는 6767만9140명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가입자 수를 보면 11월 말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는 2836만7111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으나, 전월 대비 1만 404명 줄어들었다. KT는 1765만489명(26.0%)으로 전월 대비 6만5171명 늘었

고, LG유플러스가 1381만7310명(20.4%)으로 전월보다 8만6830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든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 모두 지난달보다 더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786만9230명으로 전체의 11.6%였으나 지난해 1월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선통신 서비스 시나전화 가입자는 지난달보다 5만3550명 줄은 1365만9867명, 인터넷 전화 가입자는 2만1563명 감소한 1111만519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11월 전체 데이터 트래픽은 57만631TB(5억8432만6144GB)였고, 5G의 데이터 트래픽은 10만9244TB(1억1186만 5856GB)였다.

11월 가입자 1명당 5G 트래픽은 약 26GB(2만6305MB)로 전월 대비 약 4.9% 줄었다. /연합뉴스

한국 자체 개발 인공위성 '천리안 위성 2B호' 뜬다



미세먼지·적조·녹조 ... 재해 상황 실시간 전송

향우연, 기아나 우주센터서 2월 19일 발사 예정 무게 3.4t·10년간 임무 수행 환경탐색제 부차 세계최초

무를 시작한다. 환경부 주도로 미국 BATC사가 개발한 '환경탐색제'는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포름알데히드(HCHO), 오존(O3)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거나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20여가지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하는 장비다.

미세먼지부터 적조·녹조까지,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국내 독자 개발 인공위성이 발사장으로 향했다.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향우연)을 나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 쿠루(Kourou)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로 출발했다.

향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합온 합성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린 위성은 인천공항을 거쳐 항공 운송을 통해 이송된다.

기아나 우주센터에 도착한 위성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과정을 거쳐 발사를 준비한다. 발사에 정일은 오는 2월 19일, 아리안5(Ariane-5) 발사체를 이용해 궤도에 오를 계획이다.

향우연 주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비 3867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개발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미세먼지, 해양 환경 등을 관측하기 위한 인공위성이다. 무게는 3.4t이며, 10년에 걸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 고도까지 올라 '정지 궤도'에 안착해 임무를 수행한다. 지구와 동일하게 회전할 수 있어 항상 같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궤도다.

궤도에 오른 위성은 부차적인 '환경탐색제'와 '해양탐색제'로 본격적인 임

이번 장비는 일본부터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 외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 오염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에서 구한 구름 등 관측정보를 더하면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가 가능해진다.

환경탐색제를 정지궤도 위성으로 부착해 쏘아올리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해수부가 주도하고 프랑스 에어버스(Airbus)사가 개발한 해양탐색제도 관심을 모은다.

해양탐색제는 적조, 녹조, 유류 사고 등 해양 재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자 개발된 장비다. 해양 오염물질 투기를 감지하거나 수질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으며, 해류·해무 등을 관측해 해상안전, 해양방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지난 2010년 발사돼 최근 7년여의 임무를 마친 천리안위성 1호에도 부착돼 있다. 이번에는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13종에서 26종으로 늘리고,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250m 간격으로 좁히는 등 개량된 장비가 마련됐다.

위성이 정지궤도에 안착하면 2020년 10월부터 해양정보, 대기환경 정보 서비스를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